

삼성전자, 美 가전시장 ‘부동의 1위’ 비결은

“냉장고 터치하니 조리법에 음악까지… 슈퍼 그웨잇”

Q 르포 | 美 라스베이거스 ‘베스트바이’ 매장에 가보니

“냉장고 터치스크린에서 조리법을 알려주고 음악을 들려주는 게 마음에 든다. 아이가 냉장고 스크린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도 재미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내 위치한 베스트바이 매장에서 만난 5살 딸과 2살 아들을 둔 한 가족은 삼성전자 ‘패밀리허브’ 냉장고의 터치스크린을 연신 두드리고 신기해하며 이 같은 반응을 나타냈다. 베스트바이는 미국 내 전자제품 유통업 1위 업체다.

베스트바이 직원의 말에 따르면 이날 만난 가족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한 소비자의 반응 대부분은 비슷하다.

베스트바이의 한 직원은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도 터치스크린으로 내부 모습을 보여주면 손님들이 깜짝 놀란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박영민 가전담당은 “미국 시장 진출 20년도 안 된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제품 혁신과 현지식 맞춤 전략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갔다”며 “미국 시장에서 차별화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체험위주의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체험위주의 사업으로 차별점 뒤 오픈하우스서 직접 시뮬레이션 사물인터넷 리더십 주도 평가도 세탁기도 5분기 연속 성장 지속

대표적인 서비스가 ‘삼성 오픈하우스’다. 삼성전자가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베스트바이 미국 내 300개 매장에 마련된 삼성 오픈하우스는 85인치 초대형 터치스크린에서 매장 내에 전시하지 못하는 제품을 실물 크기로 주요 기능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베스트바이의 또 다른 직원은 “삼성 오픈하우스에서 실물과 함께 주요 기능을 직접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소비자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베스트바이 매장에 전시된 가스레인지와 오븐 일체형 제품도 미국 식습관에 맞춰 개발된 제품이다. 오븐을 많이 사용하는 미국 식습관에 맞춰 하나로 돼 있는 다른 회사 오픈과 달리 공간을 위아래 2칸으로 나눠 활용도를 높였다.



베스트바이 매장에서 만난 5살 딸과 2살 아들을 둔 한 가족은 삼성전자 패밀리허브 냉장고 터치스크린을 연신 두드리며 신기해하고 있다.

박영민 가전담당은 “고온으로 가열해야 하는 요리와 상대적으로 저온이 필요한 디지털 요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현지 식생활에 맞춘 아이디어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백색 가전일색인 미국 가전제품에 블랙스테인리스를 새롭게 적용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북미에서 컬러 마케팅 붐이 일기도 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내 위치한 베스트바이 매장 중앙에 삼성전자 TV가 전시돼 있다.

이 같은 삼성전자의 노력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패밀리허브는 지난 2016년 출시 이후 사물인터넷(IoT) 리더십을 주도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매출은 2016년 대비 2017년에 2.7배 증가했다. 올해는 6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드워시와 플렉스워시 등을 대표로 하는 세탁기의 경우 지난해 3분기 20%의 점유율로, 5분기 연속 1위다.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014년 11.8%, 2015년 15.0%, 2016년 18.7%에 이어 2017년 19.6%(3분기 누계)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가전 시장에서 다양

한 혁신 제품과 맞춤형 마케팅 전략으로 지난해 3분기에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며, 6분기 연속 1위를 기록 중이다.

박영민 담당은 “미국 가전시장은 소비자 취향도 까다롭고 보수적인 시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제품의 경험과 가치를 중시하는 30~4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이러한 소비자 변화에 맞춰 제품 혁신과 차별화, 현지화로 꾸준히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룰 메이커’가 돼 미래시장을 견인하라”

LS산전 구자균 회장, 진급자들에 당부 행복한 가정·건강한 조직 밸런스 강조

LS산전 구자균 회장이 과장 진급자와 가족을 함께 초청한 승진 축하행사 자리에서 과장 진급자들에게 ‘룰 테이커(Rule Taker)’에 그치지 말고 ‘룰 메이커(Rule Maker)’로 거듭나 회사의 미래를 주도하는 관리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LS산전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올해 신입 과장과 배우자 가족 등 170명을 초청해 승진을 함께 축하하는 ‘스마트 워킹, 해피 라이프’ 행사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1년 구자균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돼 올해로 8회를 맞은 이 행사에는 안양 본사와 연구소를 비롯해 전 사업장 과장 승진자는 물론 CEO인 구 회장, 박용상 사업총괄 부사장, 남기원 관리총괄 부사장 등 주요 임원 역시 부부동반으로 참석한다.

특히 올해 행사는 각 사업부부장 내외와 함께 승진 대상자 소속 팀장도 전원 참



구자균 LS산전 회장(가운데)이 신입 과장 및 그 배우자와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LS산전

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 “(과장을 의미하는) 영단어 ‘매니저’는 고삐를 쥐고 몸집이 큰 말을 자유자재로 다스린다는 뜻”이라며 “과장은 스스로 업무의 고삐를 쥐고 관리와 동시에 책임을 지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도 특별히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본격적인 성장 시대 진입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시

점에서 사업의 최전선에 있는 과장들이 ‘룰 테이커’를 넘어 ‘룰 메이커’로서 활약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구 회장은 “기존 관습·관행에서 탈피해야 새로운 차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해진 틀 속에서 이를 준수하는 룰 테이커에 그치지 말고, 때로는 격렬히 프레임에 거부하는 룰 브레이커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새로운 발상으로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건과 룰을 바꿔 나가는 룰 메이커도 될 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룰을 깨트리고, 룰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룰 메이커이며 이들은 회사가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견인한다”며 “올해 승진한 여러분들이 파괴적 혁신자로서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구 회장은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맞추는 일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승진 자체로 회사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지만,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결코 성공한 삶이 아니다”라며 “적절한 휴식이 건실한 자아를 만들고 더 나아가 행복한 가정,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기자 sesung@

신격호 총괄회장, 롯데월드타워로 이사

롯데그룹 ‘소공동 시대’ 마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국내 최고층 건물인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거처를 옮긴다.

아들인 신동빈 회장과 롯데지주 임직원 등은 지난해 하반기에 사무실을 롯데월드타워로 옮겼다.

이번에 신 총괄회장까지 잠실로 이주하면 롯데그룹의 40년에 걸친 ‘소공동 시대’가 마감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14일 “총괄회장이 이달 16~17일쯤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에서 잠실 롯데월드타워 49층으로 이사한다”며 “정확한 날짜는 한정후견인 측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1978년 3월 ‘소공동 시대’를 열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는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에 거주하며 업무를 봤다.

최근 대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거주지로 롯데월드타워가 적합하다고 결정했으며 이에 신 총괄회장은 롯데월드타워로 옮기게 됐다.

신 총괄회장의 거처는 롯데월드타워



롯데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형량·배임·탈세’ 등 경정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9층 고급 레지던스형 공간이다.

당초 롯데는 롯데월드타워 108~114층에 위치한 최고급 오피스텔인 ‘프리미어 7’에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인테리어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거주지를 시그니엘 레지던스로 변경했다.

이 곳에는 신 총괄회장의 법률 사무를 대리하는 한정후견인과 간병인, 경호원이 머물 공간도 같은 층에 들어선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LG의 차세대 車 부품 기술력… ‘북미’서 뽐낸다

글로벌 모터쇼 ‘NAIAS’ 참석

LG전자가 오는 28일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2018 북미 국제 오토쇼(NAIAS)’에서 차세대 자동차 부품 기술력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LG전자는 2014년 북경 모터쇼를 시작으로 매년 상하이 모터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등 글로벌 모터쇼에 참가

고 있다.

LG전자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참가, 전시회 기간 중 이날부터 18일(현지시간)까지 글로벌 완성차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핵심 부품을 전시하는 비공개 부스를 운영한다.

전시주제는 LG전자가 글로벌 전시 행사에서 일관되게 소개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파트너’다.

LG전자는 ▲구동모터, 인버터 등 전기차 구동 솔루션 ▲전동 컴프레서, 배터리를 히터 등 전기차 공조 솔루션 ▲AV 내비게이션, 중앙디스플레이장치 및 LCD 계기판 등 인포테인먼트 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자동차 부품을 전시한다.

LG화학도 차세대 배터리 소재 및 배터리팩 등을 선보인다. /정은미 기자



LG전자 직원이 부스에 전시된 디지털 콕핏(Digital Cockpit)을 소개하는 모습. /LG전자